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06/10

골프 칠 줄 아십니까? (1992~2013년)

1998년 박세리의 LPGA 첫 우승 이후 2013년 6월 10일(오늘) 박인비의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우승까지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도 커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변신 중입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5월 27~3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6명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골프를 즐기고 있고, 골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느 골프 선수를 좋아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1992년 이후 골프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1,216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3년 5월 27~30일(4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7%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골프 칠 줄 안다’: 18% - 6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
- 골프 칠 줄 아는 사람 중 ‘최근 1년간 필드 경험’: 48%
- ‘최근 1년간 골프연습장 경험’ 63%, ‘스크린골프장 경험’ 60%
-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48% vs. ‘아니다’ 47%
- ‘앞으로 골프를 배울 의향 있다’: 29% - 20/30대, 학생 골프 배울 의향 많아
-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 1위 ‘최경주’ 26%, 2위 ‘박세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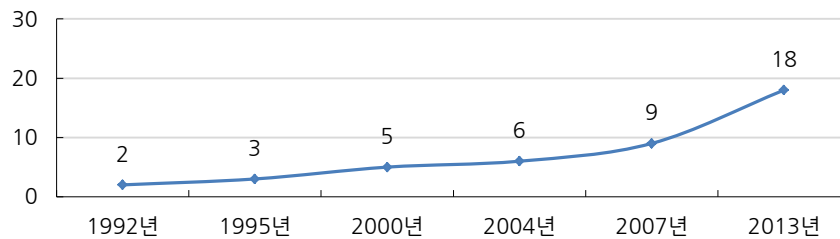
‘골프 칠 줄 안다’: 18% - 6년 전에 비해 2 배로 늘어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7~3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6명에게 골프를 칠 줄 아는지 묻은 결과 ‘칠 줄 안다’는 응답이 18%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두 명이 골프를 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골프 인구(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는 1992년 2%에서 2000년 5%, 2007년에는 9%로 증가했고 이후 6년간 2배인 18%에 이르렀다.

골프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29%, 여성의 8%로 나타나 남녀 차가 컸고, 연령별로는 40대(25%)에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35%), 화이트칼라(26%)에서 많았다.

▶ 골프 칠 줄 아십니까? (‘골프 칠 줄 안다’ 비율,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골프 칠 줄 안다	모른다
전체		1,216	18	82
성별	남성	602	29	71
	여성	614	8	92
연령별	19~29세	219	10	92
	30대	243	21	79
	40대	264	25	75
	50대	232	21	79
	60세 이상	257	13	87
직업별	농/임/어업	27	10	90
	자영업	182	35	65
	블루칼라	142	12	88
	화이트칼라	361	26	74
	가정주부	305	7	93
	학생	107	9	91
	무직/기타	90	16	84

질문) 귀하께서는 골프를 칠 줄 아십니까?

PC나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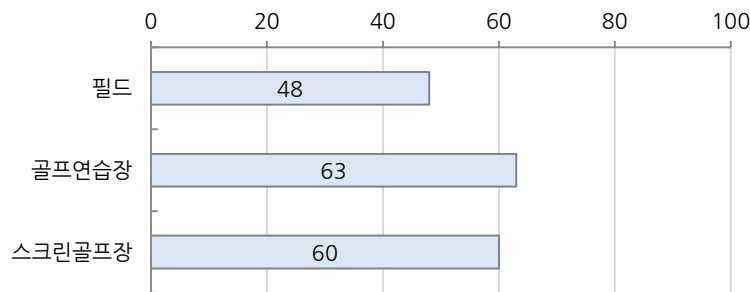
골프 칠 줄 아는 사람 중 ‘최근 1년간 필드 경험’: 48%

- ‘최근 1년간 골프연습장 경험’ 63%, ‘스크린골프장 경험’ 60%

골프를 칠 줄 아는 응답자(223명)에게 최근 1년간 필드/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이용 경험을 묻은 결과, 48%는 지난 1년간 필드에 나간 적이 있다고 답했고
골프연습장 이용 경험은 63%, 스크린골프장 이용 경험은 60%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필드/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이용은?**

(골프 칠 줄 아는 사람 223명 기준, ‘이용 경험이 있다’ 비율,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실제 필드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최근 1년 동안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48% vs. ‘아니다’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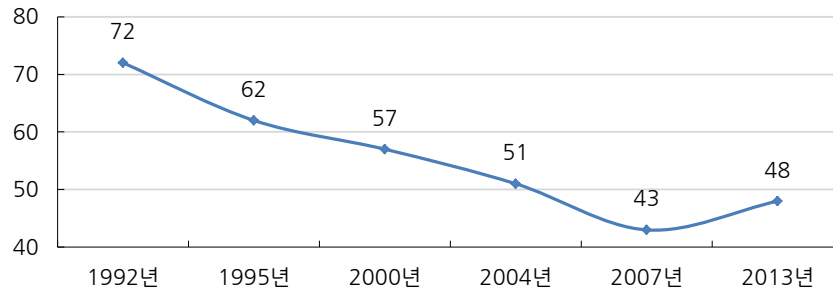
1992년 우리 국민의 72%는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8%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제 대회에서 한국인 골프 선수들이 위상을 떨치며 국민 10명 중 2명이 골프를 즐기게 된 2013년 현재 동일 질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은 ‘사치스러운 운동’ 48%, ‘사치스럽지 않은 운동’ 47%로 팽팽하게 양분됐다.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는 인식은 크게 감소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줄지는 않고 있다. 골프는 입문 후 첫 라운딩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골프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가 커 고연령일수록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인식했으며, 저연령에서는 사치스럽지 않은 운동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들(223명) 중에서는 사치스러운 운동 34%, 사치스럽지 않은 운동 62%로 답했으나, 골프를 칠 줄 모르는 사람들(993명)에서는 사치스러운 운동 51%, 사치스럽지 않은 운동 43%로 나타나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인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비율,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	사치스럽지 않은 운동	모름/ 응답거절
전체		1,216	48	47	5
성별	남성	602	43	53	4
	여성	614	53	41	6
연령별	19~29세	219	36	61	3
	30대	243	38	57	5
	40대	264	45	48	6
	50대	232	53	42	5
	60세 이상	257	65	28	7
골프 여부	칠 줄 안다	223	34	62	4
	모른다	993	51	43	6

질문) 귀하께서는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치스럽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스키/스노우보드 역시 골프와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크게 확산된 종목이다. 1994년 스키를 탈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은 6%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스키/스노우보드를 탈 줄 아는 사람 비율이 36%로 증가했다. 1994년 우리 국민의 50%는 스키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3%였다. 2013년에는 '스키/스노우보드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17%, '그렇지 않다' 78%로 변화한 바 있다.

‘골프를 배울 의향 있다’: 29% - 20/30 대, 학생에서 골프 배울 의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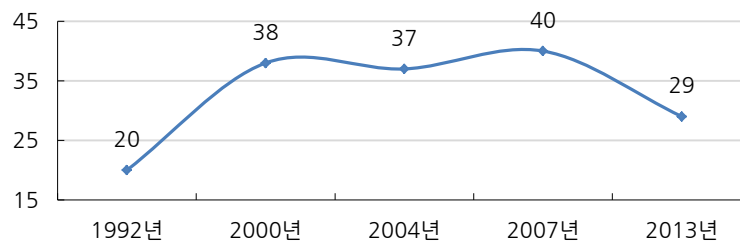
현재 골프를 칠 줄 모른다는 사람들(993명)에게 앞으로 사정이 허락된다면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묻은 결과 ‘배울 의향 있다’는 응답이 29%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비골프인 중 골프를 배울 의향 있는 사람의 비율이 11%포인트 감소했다.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 30대, 학생, 화이트칼라에서 40% 전후로 비교적 많았으며, 40대 이상에서는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6년간 골프 인구 급증 시기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 상당수는 이미 골프에 입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골프를 배울 의향은?

(골프 칠 줄 모르는 사람 993명 기준, ‘배울 의향 있다’ 비율,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골프 배울 의향 있다	배울 의향 없다
골프 칠 줄 모르는 사람		993	29	71
성별	남성	428	34	66
	여성	565	26	74
연령별	19~29세	197	44	56
	30대	193	46	54
	40대	198	28	72
	50대	182	21	79
	60세 이상	223	11	89
직업별	농/임/어업	25	10	90
	자영업	119	26	74
	블루칼라	126	33	67
	화이트칼라	267	38	62
	가정주부	283	22	78
	학생	98	45	55
	무직/기타	76	17	83

질문) 귀하께서는 앞으로 사정이 허락된다면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 1위 '최경주' 26%, 2위 '박세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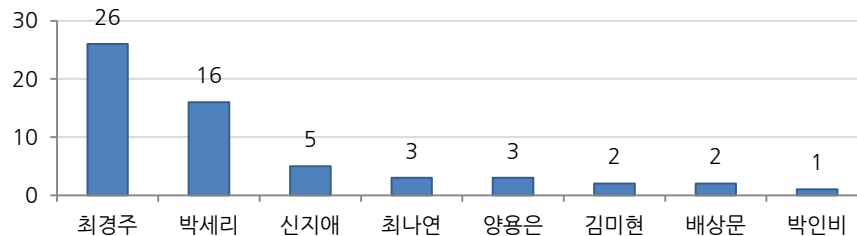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는 코리안탱크 '최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골프 선수를 2명까지 묻은 결과 '최경주'가 26%로 가장 많이 응답됐고 그 다음은 '박세리' 16%였다.

최경주와 박세리는 각각 한국인 최초로 PGA, LPGA를 석권한 선수들로 최근 활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 국민의 뇌리에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로 각인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지애'(5%), '최나연'(3%), '양용은'(3%) 등이 좋아하는 골프 선수로 응답됐다.
좋아하는 골프 선수가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한편,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들(223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는 1위 '최경주' 40%, 2위 '박세리' 16%였고 그 다음은 '최나연'(9%), '배상문'(8%), '신지애'(8%), '양용은'(7%), '박인비'(5%)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는? (2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질문)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서
귀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수는요?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